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4



Contents

※ 2025.06.19.(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6.12.~2025.06.18.)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포항시 수소차 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인상(2025.06.18)	1
- 박완수 경남지사 덴마크공과대학교 수소기술 협력(2025.06.18)	1
- 부산시의회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조례안 발의(2025.06.17)	1
- 동해시 수소 융복합에너지 산학연합의체 사무실 개소(2025.06.16)	2
- 동해신항 건설 재정사업 전환으로 수소산업 연계 부두 기능 변경(2025.06.16)	2
- 부안군 신형 수소전기차 '디올뉴넥쏘' 보급 확대(2025.06.15)	2
-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도약기 맞아 인프라 본격 가동(2025.06.15)	3
- 군산시 AI·그린수소·예술특구 등 8대 국책사업 추진(2025.06.12)	3
- 창원시 수소사업 관련 수사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2025.06.12)	3
■ UAM	
- 제주과학축전 오는 13일 개막 UAM·AI시뮬레이터 등 다채(2025.06.12)	4
■ 우주	
- 글로벌 기술혁신 거점 도약... 대전시-퀘벡주, '우주항공' '양자' 연구혁신 협력 (2025.06.12)	5
- '한국 최초 발사기지' 고흥에 제2우주센터 조성해야 (2025.06.12)	5
-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국정과제 채택 요청 (2025.06.15)	6
- 사천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6.17)	6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한자연-육군 이동형 수소발전기 개발 협력(2025.06.18) 7
- KIST-POSTECH 수소·AI·로봇 분야 연구협력 확대(2025.06.17) 7

■ 우주

- 우주청·국방부 '우주위험 대응훈련' 정례화 합의 (2025.06.12) 8
- 세계 최초 우주발사체용 3D프린팅 부품 '극저온 내압 시험' 성공 (2025.06.12) 9
- 우주청, KASA R&D 전략 설명회 개최...'우주 5대 강국' 도약 로드맵 제시 (2025.06.12) · 9
- 항우연·천문연,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 이전 법안 발의 파장 (2025.06.18) 10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두산퓨얼셀 도시가스 업체와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지원 협력(2025.06.16) 11
- 미중 패권전쟁 속 현대차-도요타 수소차 협업 확대(2025.06.15) 11
- 전통 제조업에서 이차전지·수소로 전환하는 한국판 말뚝의 기적 추진(2025.06.12) 12

■ UAM

- 이재명 정부의 교통 공약 '차세대 모빌리티 UAM'...현대차그룹 '주목'(2025.06.16) 12
- GS건설, 유아이그룹과 UAM 사업협력 MOU 체결(2025.06.17) 12

■ 우주

- 한국비철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제 55회 파리에어쇼 참가 (2025.06.13) · 13

- 텔레픽스, 유럽우주국 주최 국제 심포지엄 참가...우주 쓰레기 문제 논의 (2025.06.16)	14
- 다쏘시스템, 파리 에어쇼서 항공우주·국방 혁신 기술 공개 (2025.06.16)	14
- 경남 우주산업-핀란드 위성기술 '맞손', 경남대표단, 아이스아이 투자협약 체결 (2025.06.16)	15
- 전문대, 우주로 향한 손잡기...영진전문대-KAI 기술동맹 (2025.06.13)	16
- 전남대, BRL 2건 선정...가속 스트레스 대응·미래형 우주농업 원천기술 기술 개발 나서 (2025.06.17)	16
- '합동군사우주력 발전 심포지엄' 개최, "첨단 우주능력, 군사적 활용방안 찾는다" (2025.06.12)	1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포항시 수소차 보조금 전국 최고 수준 인상(2025.06.18) - 포항시가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인상. '디 올 뉴 넥쏘' 보조금은 3,750만원, 수소버스는 4억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국 최고 수준 지원 - 올해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50대, 수소버스 10대 총 60대 규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포항시 거주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 - 포항시는 장흥 수소충전소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영일만4산업단지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조성 계획. 이강덕 시장은 수소차 대중화와 친환경 교통 전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 박완수 경남지사 덴마크공과대학교 수소기술 협력(2025.06.18) - 박완수 경남지사가 덴마크공과대학교(DTU) 에너지연구소를 방문하여 글로벌 수소기술 선도 계기 마련 의지 표명. DTU는 유럽 공과대 평가기관 'EngiRank'에서 1위를 차지한 명문대학 - 차세대 수전해기술 국제공동연구 후속 조치로 2024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간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연구과제 진행. 그린수소 생산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경쟁력 확보 기여 기대 - 경남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선진기관과 네트워크 강화하고 도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 발표
	□ 부산시의회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조례안 발의(2025.06.17)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부산 수소충전소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11% 높아 수소차 보급 걸림돌이 되는 상황 개선 목적 - 부산지역 전체 11개 수소충전소의 평균 수소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1kg당 1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1330원으로 전국 평균 1만176원보다 높은 수준. 수소 수급 계획, 생산시설 설치 계획, 연료 가격 안정화 방안 등 포함 - 부산시 주도의 수소 생산 정책과 수소 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 마련 필요성 강조.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해시 수소 융복합에너지 산학연협의체 사무실 개소(2025.06.16) - 강원 동해시의 수소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수소 융복합에너지 연계사업 산학연 협의체 구성. 18일 북평산업단지 자유무역관리원 3층에 협의체 사무실 개소식 개최 예정 - 상시 협업 및 의사 결정 허브 구축을 대내외에 알리고 회원사 및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 활성화 목적. 사무실 개소와 함께 비전 발표하고 수소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계획 - 홍승기 협의체 회장을 비롯해 민귀희 동해시의회의장 등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40여명 참석 예정. 동해시 수소산업 집적화와 협력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동해신항 건설 재정사업 전환으로 수소산업 연계 부두 기능 변경(2025.06.16) - 강원 동해시 동해신항 건설사업이 올해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본격 추진. 석탄 부두는 설계 완료 후 하반기 착공, 기타광석과 잡화 부두는 상반기 중 공사 시작 - 동해시가 수소 산업 육성과 연계하기 위해 4번 부두 기능을 기존 기타광석에서 화학공업생산물로 변경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수소(암모니아) 기반 생산물 등 화학제품 처리 가능 - 동해신항과 삼척해변역을 잇는 3.6km 구간 인입철도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 중. 2030년 준공 목표로 동해·목호항이 환동해 물류 및 관광 거점 항만으로 도약 기대
	□ 부안군 신형 수소전기차 '디올뉴넥쏘' 보급 확대(2025.06.15) - 전북 부안군이 현대자동차 신형 수소전기차 '디올뉴넥쏘' 출시에 따라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보급 박차. 7년 만에 출시된 모델로 충전시간 5분 내외, 주행거리 702km로 성능 향상 - 판매가격 약 7644만원에서 보조금 3450만원 지원으로 자부담 금액 약 4194만원. 승용차 20대 물량 중 현재 8대 보급 완료로 12대 잔여, 11월 12일까지 접수하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공고 전일까지 6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18세 이상 개인, 법인, 단체 대상.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 높은 차량 등 우선 제공
	□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도약기 맞아 인프라 본격 가동(2025.06.15) -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도약기 맞이. 완주 산단지역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중심으로 수소용품, 연료전지 및 생산인프라 구축 등 기반 집적·고도화 추진 -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센터 등 지원기반 구축.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는 국내외 최초 설립으로 지난해 6월부터 본격 가동되어 741건 검사 실적 - 완주 수소생산기지는 월 47톤 수소 생산/판매로 안정적 공급기지 역할. 산자부 지정 수소전문기업 4개사, 수소 관련 기업 약 34개사 등 기업유치 활발
	□ 군산시 AI·그린수소·예술특구 등 8대 국책사업 추진(2025.06.12) - 전북 군산시가 '2025 국책사업발굴단 중간보고회' 개최하여 8개 우선 사업의 심화 연구 방향 발표. AI 기반 위성활용센터 구축, E-Fuel 실증단지와 화학안전체험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과 시민 안전 포괄 - 새만금 국가 전략지대 중심 우주·수소·해양 분야 신산업 육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 기대. 청년농업인 원예특성화지구 조성 및 베리어프리 힐링센터, K-예술특구 조성도 포함 -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 아래 기후 위기·산업 전환·사회 안전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 대응하는 전략 사업으로 구성. 7월 말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창원시 수소사업 관련 수사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2025.06.12) - 김мина 전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사업 관련 수사의 철저한 진행 필요성 강조.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는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친 의회의 정당한 특위 활동 결과물임 - 2025년 3월 14일 제141회 창원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결 절차를 거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정상적 행위라고 밝히며 결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 수소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 존재 - 수소사업 관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한 절차 무시하고 책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늘의 혼란을 자초한 본질이라고 비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제주과학축전 오는 13일 개막 UAM·AI시뮬레이터 등 다채(2025.06.12) - 제주도가 '제26회 제주과학축전'을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과학, 제주를 만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제주과학문화협회와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가 협력해 진행. 도내 70여개 학교와 기관, 기업이 참여해 모두 110개 부스에서 105개 프로그램이 운영 - 행사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AI 시뮬레이터, UAM 등 첨단기술 체험이 가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SW미래채움 제주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과학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 제주지역 학생들과 관람객들이 미래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이번 축전은 제주 지역의 과학 문화 확산과 청소년들의 과학적 호기심 증진을 목적으로 함. 특히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어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행사로 평가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글로벌 기술혁신 거점 도약... 대전시-퀘벡주, '우주항공' '양자' 연구혁신 협력 (2025.06.12) - 대전시와 캐나다 퀘벡주가 몬트리올에서 연구·혁신 분야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 분야 국제 공조를 본격화. 협약은 북미 최고 수준의 국제 정책포럼인 '몬트리올 컨퍼런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크리스토퍼 스킵트 퀘벡주 경제장관이 직접 서명. 우주항공, 바이오, 반도체, 양자기술 4개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이 핵심 - 퀘벡주는 막강한 행정·재정 역량과 항공우주·양자·바이오 등 산업별 선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갖춘 북미 과학기술 중심지. 대전시와 퀘벡주는 우주항공과 양자 2개 과제를 공동 추진하며, 최대 3년간 과제당 3억원을 1대 1로 매칭 지원. 대상은 양 지역 소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컨소시엄 - 대전시는 지난해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식에 퀘벡주를 특별 초청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옴. 퀘벡주 경제장관은 대전을 연구혁신협약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로 “대전이 이미 전세계 연구개발 리더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양 지역은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함께 이끌어가기로 약속 ☐ '한국 최초 발사기지' 고흥에 제2우주센터 조성해야 (2025.06.12)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고흥에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며, 이는 단순 발사체 건립을 넘어 우주산업의 집적화를 의미. 공약에는 나로우주센터 고도화, 재사용발사체 발사장 등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과 우주테마 전시·체험공간 조성이 포함.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 등도 함께 공약하여 고흥을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 - 현재 정부는 고흥과 제주지역을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검토 중이나, 발사체 인프라가 조성된 고흥이 최적지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고흥은 나로우주센터가 자리잡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상징적 장소로, 나로호와 누리호 등 국산 발사체들이 개발되고 시험됨. 발사대, 추진체 시험장 등 우주발사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다른 후보지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 - 전남도는 전략 수립과 홍보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고흥군도 유력 후보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주변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정비 등 선제적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음. 문금주 국회의원은 “우주센터 집적화는 당연한 방향이며, 이를 위해 고흥 유치는 필수적”이라며 고흥의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측면에서 제주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
	□ 경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국정과제 채택 요청 (2025.06.15) - 경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경남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요청.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13일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 우주항공분야, 산업분야, 교통·물류 분야 등 총 100건의 세부 사업을 담은 건의서 제출 - 건의서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구,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등이 포함. 이는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경남도 지역공약, 시군 지역공약, 분야별 정책공약 등을 토대로 연계 작성 -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지역은 광역 GTX망 구축, K-조선업 발전, 제조특화 AI플랫폼 개발, 첨단스마트·우주·항공·방산 산업메카 조성,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 구축 등 도내 주력산업 고도화와 균형발전에 중점. 경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과제 대책반'을 운영하며 중앙부처·국회 등을 방문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할 계획
	□ 사천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6.17) - 서천호 국회의원인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함께 연계 추진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인근에 소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산재된 우주항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글로벌 우주경제시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미 - 전 세계적 우주항공 대표적 도시인 프랑스 툴루즈 사례처럼 분산돼 있는 우주연구개발기관과 산업육성기능을 함께 모아 현장 중심의 연구 재편을 통해 경남을 세계적인 우주항공 지역으로 동반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법안 발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우주항공수도를 자처하는 경남은 정책·산업·연구기능을 더해 교육·문화·관광·교통이 어우러진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 2022년 기준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이 70.6%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해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과 산업기능을 갖춘 정주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이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우주항공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목표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자연-육군 이동형 수소발전기 개발 협력(2025.06.18) -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육군이 이동형 수소연료 발전기 및 수소공급 장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소연료 발전기 기술 개발과 운용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합의. 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운용개념·운영방안 설정, 실증·운용 적합성 평가 등 추진 예정 - 국방 분야에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도입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 이동형 수소 발전기는 군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환경 친화적 운용이 가능한 차세대 군용 장비로 평가 - 양 기관은 수소에너지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 KIST-POSTECH 수소·AI·로봇 분야 연구협력 확대(2025.06.17)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연구협력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정수소', 'AI·로봇', '이차전지' 기술 개발 등 공통 관심분야 연구협력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POSTECH의 RISE 사업 학연일체센터와 KIST의 학연 특화 프로그램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 전략 분야인 이차전지, 미래에너지(수소), 딥테크(AI·로봇)에서 공동연구 진행 예정 - 2016년 양자컴퓨팅 분야 협력을 위한 KIST 조인트 리서치 랩 설치와 학점 인정형 인턴십 협약 체결로 협력 토대 마련. 이번 MOU를 계기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을 연계한 연구협력 본격 추진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우주청·국방부 '우주위협 대응훈련' 정례화 합의 (2025.06.12) - 우주항공청과 국방부가 민·군 합동 '우주위협 대응훈련'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 이번 결정은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짐. 우주개발 가속화로 인한 인공우주물체 증가에 따른 위험성 대응이 목적 - 양 기관은 민·관·군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우주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로 함.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우주청과의 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밀한 공조를 통한 국방우주 역량 강화를 약속.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 방침을 강조 -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우주분과 실무위는 이번에 처음 열렸으며, 민·군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
	□ 세계 최초 우주발사체용 3D프린팅 부품 '극저온 내압 시험' 성공 (2025.06.1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동 연구팀이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대형 티타늄 합금 용기가 -196℃ 극저온에서 330bar 고압을 견디는 시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 우주발사체 고압용기는 액체연료와 추진제 저장·공급, 자세제어용 가스 고압 상태 유지를 위한 핵심 부품. 기존 주조·단조 방식의 소재 수급 어려움과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층제조 공정 도입 - 연구팀은 DED 방식의 적층제조 공정으로 직경 640mm, 크기 130L급 티타늄 합금 고압용기를 제작. 공정 중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적층 품질을 정밀 제어하고, 구조 특성과 열변형을 반영한 적층 경로 최적화 기법으로 대형 용기의 형상 정밀도와 기계적 물성을 동시에 확보. 두 개의 반구형 티타늄 부품을 적층 제조한 후 열처리·정밀 가공·용접 공정을 순차 적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극저온 시험을 주관하여 용기 내부를 -196℃ 액체질소로 냉각한 뒤 330bar까지 단계적으로 가압하는 방식으로 내압 성능 평가. 변형률 센서와 온도 센서,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계측 결과 구조 해석 수치와 일치하는 성능 기록. 이는 다양한 우주항공 응용 분야에 적층제조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의미
	□ 우주청, KASA R&D 전략 설명회 개최... '우주 5대 강국' 도약 로드맵 제시 (2025.06.12) - 우주항공청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KASA R&D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이끌 R&D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공유. 우주청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 우주항공임무본부 소속 3개 부문(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이 분야별 전략 로드맵을 발표 - 우주청은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한 핵심 과제인 재사용발사체 및 궤도수송선, 초고해상도 위성 및 초저궤도위성·다중궤도 항법시스템, L4 태양권 관측소 및 달 착륙선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집중할 계획. 누리호 지속 발사, 유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우주임무기반 구축, 통신위성 개발 등도 추진 - 장기발전보고서,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 KASA-PR 등 우주청 개청 이후 1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기술 확보와 민간 주도 구조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공과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약속
	□ 항우연·천문연,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 이전 법안 발의 파장 (2025.06.18) - ‘과학수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파장이 일고 있음. 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주된 사무소는 경남 사천에 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 - 공동발의에는 충청권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16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박덕흠, 엄태영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경남 사천을 세계적 우주항공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군용기·항공부품 제조 중심 특화, 항공 정비부품 국산화, 우주항공 철도 건설 방안 모색 등 대부분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한 내용 - 대전의 조승래 의원과 황정아 의원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음. 조승래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 법안은 우주항공 정책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대전은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생산기반이 있는 사천은 산업 중심,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은 발사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우주산업의 효율적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두산퓨얼셀 도시가스 업체와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지원 협력(2025.06.16) - 두산퓨얼셀이 서라벌도시가스, 지엔씨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분산형 발전과 도시가스 필요 지역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목적 -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과 LTSA 서비스 담당, 서라벌도시가스는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및 인프라 지원, 지엔씨에너지는 사업개발과 투자, EPC 업무 수행 - 지역사회외의 외부 전력 의존도 낮추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기대. 전국 30여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로 사업모델 확대 적용하고 LTSA 서비스 공동 수행 계획
	□ 미중 패권전쟁 속 현대차-도요타 수소차 협업 확대(2025.06.15) - 미중 패권전쟁 여파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그룹의 협업 확대. 두 그룹 협력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인 수소가 유력하며 현재 수소차 분야 선두 위치 - 현대차는 지난 4월 일본 이와시키그룹과 손잡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야쿠시마의 무공해 섬 전환을 돕는 업무협약 체결. 한일 간 자동차·배터리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 코트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공통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하고 부품 조달을 미국 내 거점으로 전환 중이라고 분석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전통 제조업에서 이차전지·수소로 전환하는 한국판 말뚝의 기적 추진(2025.06.12)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공세 속에서 한국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서 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 산업 기반 도시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스웨덴 말뚝과 영국 셰필드 등은 첨단제조산업 전환으로 성공한 대표 사례 - 포항과 광양은 철강업 중심에서 이차전지 소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배터리 전 밸류체인 생태계 조성 중.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수소 생태계 조성에 집중 - 산업구조 전환뿐만 아니라 고용·인구·주거환경 등 도시 시스템 전반 재정립 전략이 필요. 국토연구원은 산업의 가치사슬 중심 전후방 산업 연계와 정주환경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이재명 정부의 교통 공약 '차세대 모빌리티 UAM'...현대차그룹 '주목'(2025.06.16) -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중 UAM을 미래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선정해 상용화 일정 현실화를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UAM 사업을 준비하고 투자해 온 현대차그룹이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국가 차원의 항공·방위·우주산업 육성책 일환으로 UAM 관련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 UAM 실증을 위해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고층 건물 옥상에 UAM 이착륙 시설 설치도 계획 중. - 현대차그룹은 2020년 CES에서 우버와 협업한 개인용항공기 'S-A1'을 공개했고, 2021년 UAM 법인 '슈퍼널'을 설립하여 2028년 도심 내 상용화와 2030년대 도시 간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 □ GS건설, 유아이그룹과 UAM 사업협력 MOU 체결(2025.06.17) - GS건설과 유아이그룹이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UAM 사업 초기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GS건설은 UAM 주요 섹터별 사업자들과 함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구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을 주도하고, 유아이그룹은 운항 및 항공정비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기체 운항안전 및 유지·정비 체계수립, 인력 양성 및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 - 협약에는 UAM 초기시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와의 협력 강화, 실질적 UAM 통합운용 체계 구축, 국내 UAM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협력 모색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 양사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UAM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UAM 시장 확장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구체화할 예정.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GS건설이 UAM 통합운영사업자이자 전략적 투자자로서 초기 시장에서 실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유아이그룹과의 협력은 실질적인 운항사업 역량 확보에 큰 시너지를 줄 것”이라고 밝힘. UAM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간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한국비철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제 55회 파리에어쇼 참가 (2025.06.13) - (주)한국비철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인 '파리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발표. 국내 알루미늄 업계 최초로 항공우주·방산 전문소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으로, 고품질 알루미늄 소재를 빠른 납기와 원가 절감을 통해 공급. 반도체, 조선,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 소재 공급의 핵심 기업 - 올해 55회를 맞는 파리 에어쇼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와 함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48개국 2,500여 개 기업과 13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대기업과 30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참가해 첨단 우주항공 기술을 선보일 예정 - 안국현 한국비철 대표이사 회장은 “파리 에어쇼 참가를 통해 한국이 우주항공 소재 분야에서 아시아 시장의 납기 단축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릴 것”이라며, “한국비철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소재 공급 역량과 핸들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텔레픽스, 유럽우주국 주최 국제 심포지엄 참가·우주 쓰레기 문제 논의 (2025.06.16) - 인공위성 인공지능 토탈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가 10~11일 유럽우주국이 주최하는 '우주 쓰레기 제로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발표. 독일 다름슈타트 유럽우주운용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우주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우주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 유럽우주국이 2030년까지 우주에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우주 쓰레기 제로' 정책의 일환 - 텔레픽스는 지난해 3월 유럽우주국이 전 세계 우주 분야 주체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한 '우주 쓰레기 제로 헌장'에 서명. 우주 쓰레기 감축 및 복구를 위한 목표와 행동 지침을 담은 이 헌장에는 독일, 영국, 뉴질랜드 등 20개 국가와 전 세계 우주 기업 및 학회 등 156개 이상의 기관이 서명. 서명 기업으로는 에어버스, 아마존,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 등이 있으며, 국내 우주 기업은 텔레픽스가 유일 - 전승환 텔레픽스 글로벌사업부문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주 쓰레기 제로' 추진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우주 쓰레기 경감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 현황 등을 논의. 참여한 우주 분야 관계자들은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 기관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규제와 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텔레픽스는 지속가능성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
	□ 다쏘시스템, 파리 에어쇼서 항공우주·국방 혁신 기술 공개 (2025.06.16) - 다쏘시스템이 16일 개막한 파리 에어쇼에서 '3D유니버스' 기술로 항공우주와 국방 산업의 설계·생산·운영 혁신 방안을 선보임. 3D유니버스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데이터 과학,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 전 과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을 디지털화하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통합하는 가상 환경을 제공. 복잡성과 안전성, 기술력, 지속 가능성 등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 - 다쏘시스템은 부스에서 항공기 수명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버추얼 트윈' 기술과 AI 기반의 생성형 설계를 시연. 설계·생산부터 테스트·유지보수까지 과정 자동화와 최적화 방안을 제시. 패널 토론을 통해 버추얼 트윈 기술이 공급망, 항공 이동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이끄는지 논의 - 데이비드 지글러 다쏘시스템 항공우주·국방 산업 부문 부사장은 “항공우주와 국방의 미래는 새로운 설계와 구현 방식에 달려 있다”며 “3D유니버스를 통해 생성형 AI와 전문 지식을 결합, 고성능·탄력성·주권을 갖춘 산업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다쏘시스템의 이번 기술 공개는 전통적인 항공우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경남 우주산업-핀란드 위성기술 '맞손', 경남대표단, 아이스아이 투자협약 체결 (2025.06.16) -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핀란드의 글로벌 소형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기업 아이스아이와 투자유치 및 업무협약을 체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 도지사, 요스트 엘스탁 아이스아이 글로벌 미션 총괄 부사장, 에릭 리 아이스아이 한국 지사장이 참석. 경남도의 우주산업과 핀란드의 첨단 위성기술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에서의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 아이스아이는 지구 관측을 위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운영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SAR 위성군을 보유·운영하며 전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에 가까운 영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합성개구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 지표를 관측하는 기술로, 흐린 날씨나 야간에도 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 재난 감시, 국방 안보,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업계 최고 수준인 25cm 해상도를 제공하며 총 48기의 위성 발사에 성공 - 박 도지사는 “경남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라며 “아이스아이와의 협약은 경남 우주항공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경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스아이와 도내 우주 관련 기업 간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을 공동 검토하고, 위성데이터 활용 확대, 전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전문대, 우주로 향한 손잡기...영진전문대-KAI 기술동맹 (2025.06.13) - 영진전문대학교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항공우주 IPS 분야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의향서를 체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주관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이뤄졌으며, 영진전문대를 대표해 국방군사계열 김기병 교수가 참석.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KAI와의 항공우주 분야 협약을 맺은 첫 사례로 주목 - 양 기관은 항공우주 IPS 가상기술 교육 플랫폼 개발 협력, 4차 산업혁명 기반 항공우주 IPS 기술 개발 및 자문, 산학 연계 R&D 과제 발굴 및 공동 참여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전반의 미래 핵심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실무 역량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 - KAI 관계자는 "영진전문대는 국방 분야에서 뛰어난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력이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실무형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영진전문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항공우주 분야로의 진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
	□ 전남대, BRL 2건 선정...가축 스트레스 대응·미래형 우주농업 원천기술 기술개발 나서 (2025.06.17) - 전남대학교 오세종 동물자원학부 교수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음.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으며, 세계를 선도하는 동물생명과학 분야의 기초과학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가 '나노 우주농업 기초연구실'을 개소하여 총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운영. 김장호·손형일 전남대 교수팀과 장경제·김건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팀이 공동으로 참여. 나노기술,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우주환경 제어 및 모니터링 기술을 융합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최소 자원으로 최대 작물 생산이 가능한 미래형 우주농업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 - 이번 연구는 전남대가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정착 AI 국가연구소'와 연계되어, 우주농업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것으로 기대. 이희경 학과장은 “이번 연구실 개소는 4단계 BK21 융합시스템농업 교육연구단, 디지털농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사업단 등과 함께 미래 농업과 바이오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합동군사우주력 발전 심포지엄' 개최, "첨단 우주능력, 군사적 활용방안 찾는다" (2025.06.12) - 민·관·군 우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민간 우주능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과 해병대 관계자, 국방 유관기관 및 우주산업 업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주한미우주군이 참석.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업체의 첨단 우주기술 역량을 군사우주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논의 - 김명수 합참의장은 환영사에서 “각국은 우주에서 경쟁우위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 우주력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민군협력의 수준을 뛰어넘어 민군융합의 시대”라며 선순환적 기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 주한미우주군 부대장 패트릭 대령은 미 우주군이 상용 우주자산을 우주작전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 합참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군과 우주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